시사논단

털고 가자, 그러나 …

지형은 목사
· 성락성결교회 담임

독일에서 공부하며 목회할 때다. 내가 섬기는 한 인교회가 도르트문트 아이힐링호펜에 있는 독일 교회 건물을 빌려 썼다. 어느 해에 독일 교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데 우리 교회도 참여했다. 거기에서 지금까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진 일이 있었다.

안내인이 40대 초반의 요시라는 사람이었다. 일정 중에 홀로코스트 박물관 야드바셈이 있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요시가 말했다. 자신은 박물관 안에까지 들어가서 안내하지는 못한다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이다. 40명 조금 못되는 우리 일행이 박물관을 다 둘러보았다. 끔찍한 유품과 사진들이 가득했다. 생체 실험을 당하며 죽는 장면, 발가벗겨진 채로 끌려가는 남편을 역시 발가벗겨진 채로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손을 붙잡고 바라보는 아내, 죽은 사람들의 이빨과 신발들, 희생당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유품들….

독일 사람들은 대단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거의 모든 일행이 끝까지 다 보았다. 몇 사람이 도중에 나가기는 했지만. 박물관을 나와서 버스에 올랐다. 모두 말이 없다. 버스에 타면 늘 우스갯소리를 하며 우리를 즐겁게 하던 요시도 아무 말 없이 앞자리에 앉아 있다. 15분이나 20분 정도 차가 달렸을까, 요시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복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한은 잊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자체를 잊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망각은 과거의 불행을 다시 반복하게 만듭니다."

한 해가 간다. 매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올해처럼 많은 일이 있었던 해가 흔치 않다. 정치적으로 정당 정치가 불신을 당한 사건의 충격이 컸고, 경제적인 점에서 불황의 그늘이 참 짙었고 그 사안이 현재 진행형인 한미에프티에이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일본발 방사능 사고는 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가. 격변의 해라는 별명을 확실히 하려고 했는지, 연말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이제 곧 한 해가 간다. 싫든 좋든 새해가 올 것이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나 새로운 해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해가 바뀔 때 필요한 지혜는 지나가는 해를 털고 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일들을 털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새해를 맞을 수 있다.

털어내는 게 지혜인 까닭은 무엇보다 시간의 흐름 때문이다. 지난 걸 어쩌겠는가. 후회한들 어쩌겠는가.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으니 말이다. 지난 일 때문에 안달하고 속을 끓이고 분노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미련한 일이다.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나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상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털되 잊지는 말아야 한다. 사건과 사안에 대한 당시의 고통은 잊어야 하지만 거기에서 얻은 가르침은 잊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인 일에 대한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은 백해무익하다. 그러나 거기에서 생긴 깨달음은 천만금보다 더 귀하다. 역사의 가르침을 망각하면 고통의 역사가 되풀이된다.

이런 얘기를 한국 교회에 대보자. 곧 지나갈 해는 한국 교회에 참 뼈아팠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다 안다. 마찬가지로 해보자. 다 털자. 털고 가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우리가 참 부끄러웠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한 것을 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뼈아픈 가르침을 결코 잊지 말자! 그래야 희망이 동터올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참 특이한 표현이 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해는 아래에서 떠오른다. 돋는 해는 아래에서 위로 솟는다. 그런데 돋는 해가 위에서 온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내려올 수도 있다. 한국 교회와 사회에 그리고 오늘의 세계에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 기도하자. 간절하게 두 손 모아 하늘 아버지 우러르며 빌자. 새해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말이다.

포 럼

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제호 사무처장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한미 FTA 비준통과로 다시 저작권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향후 외국 저작권업체로부터 직접적인 고소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아직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저작권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을 계기가 한국교회가 저작권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꼭 필요한 상용소프트웨어만 구입한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고가의 기업용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도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근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저작권업체에 교회용(비영리용)라이선스 정책개발을 요청하여 교회의 경우 공공기관용 또는 교육용처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겠다. 하지만, 우선은 교회 내에 주일에만 사용하는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는 없는지 살펴 실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내에 꼭 MS오피스나 한컴오피스처럼 상용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외부와의 호환성이 필요하지 않은 컴퓨터의 경우 오픈오피스와 같은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교회 음악저작물 신탁단체 운영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와 달리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곡가·작사가 뿐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사도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개 교회들이 알아서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기윤실에서는 2007년부터 교회저작권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지만, 복잡한 저작권절차를 다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일반음악처럼 각 분야에 따른 신탁단체들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회가 알아서 저작권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런 와중에 최근 10여개의 중대형 교회 찬양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칭 '한국교회저작권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교회의 음악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의체가 현실화 되면 개 교회들이 일일이 저작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단위의 계약(비용 지불)을 통해 교회에서 사용하는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저작권자 뿐 아니라 저작권 대행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저작권(물) 구매비를 예산에 책정한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비품(컴퓨터, 빔 프로젝트, 성가대 가운, 악기 등)의 경우 예산을 책정하거나, 특별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구입하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비품(소프트웨어, 악보 등)의 경우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예산책정에 소홀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특별히 저작권(물)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 또한 낮아 더 소홀하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저작권을 잘 고려하여 그것에 맞는 예산을 책정하여 실제 구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마 5:41).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저작권 사용 의지이다. 한푼 들이지 않고 이용하던 저작물을 가격을 낮춘다던지, 어떤 대안을 만들더라도 공정한 사용 의지가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아무리 좋은 공개소프트웨어를 알게 되더라도 익숙한 것을 버리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헛것이 될 것이다.

실제 기윤실에서는 2008년 여러 기독교 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한글과컴퓨터사 등과 종교기관용 라이선스 개발에 합의하고, 실제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 등을 종교기관용 라이선스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매부진으로 인해 6개월만한 라이선스 정책이 취소되고 말았던 경험이 있다. 마태복은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유명한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저작권 문제에 있어 우리에게 십리를 가는 것은 무엇일까?

* 외부 원고는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 說

거룩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셨다. 사람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임마누엘!

이 뜻을 인간이 모르고, 그 말씀에 군더더기를 붙여 그 거룩하신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 많다. 말씀을 저버린 그들이 먼저 버림을 당했다. 사람아,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사람되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모르느냐. '동정녀다, 처녀다'를 몇 천년 동안 시비하려느냐. 안타까운 인생아. 로고스(λογος)다. 하니 옳거니 그러면 이성(理性)의 그릇일 뿐 그래서 그 말씀을 잡아먹고 자유주의자들이 되더라.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되어 사람과 함께 사신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성이시다. 동일본질(Ὁμοούσιος)이다. 유사본질(Ὁμοιούσιος)로 덤비지 마라.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능력으로 하나님이 되셨다거나 하나님으로 거룩을 입힌 바 되신 분이 아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베들레헴 마구간 말밥통 속에 오셨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시더니 그럼 그 몸으로 사람은 물론이고 마소의 먹거리까지 되자 하시는 뜻을 품으셨을까. 자비무한 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마음으로 짐승들까지 사랑하신 것인가요. 하늘에는 영광, 이 땅의 평화로 오신 예수시여.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불을 마저 끄지 않으시는 주시여, 겸손하사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미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 하나님이여.

이 시대 한 복판에 오시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예수시여. 오늘의 한국교회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가야 할지 가르침을 내리소서. 우리는 휴머니즘의 탁류에 휩싸여 진흙탕더미가 되어가는 기독교의 모습을 차마 더는 볼 수 없나이다.

겸손의 이름으로 오신 주여. 사람의 덕목 중 제일은 겸손이라 하시고 겸손을 모범하신 예수시여. 희생과 헌신으로 오신 주여, 희생과 헌신보다 더 큰 제사는 없다 하시고 우리의 대속(代贖)으로 제사되신 예수시여, 그렇다면 믿는 우리가 이제는 제단 앞에 엎드려 산 제물의 도리를 배우게 하소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죄된 인생을 구원하신 주시여, 성령께서 이를 보증키 위하여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예수여, 어그러진 세상에서 죄인들을 돌보면서 저들을 주 예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일으키신 주시여, 영광 또 영광을 받으소서.

김정일 이후는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오던 북한 권력이 드디어 그 향방을 종잡기 어려운 한계에 다다랐다. 지난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권력자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안의 급박함 때문인지 북한 당국은 이틀이 지나서야 지난 월요일 '김정일 사망' 소식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부친 김일성부터 현재까지 66년 동안 대한민국 북쪽은 동토의 땅, 암흑의 땅, 생지옥 같은 음지로 남아서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1994년부터 오늘까지 17년 동안 얼마간 개방의 의지도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식 개방'마저 불가능한 처지가 된 북한은 또 한번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다.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은 씨가 29살의 젊은나이에 후계절차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그가 과연 권력 공백기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북한의 현재 상황은 해방이후 최악의 형편이 된 것 같다. 남북한 모두에게 동시 위기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칫 남북한 간의 분쟁이 일어나거나 권력다툼, 또는 체제 붕괴 등 돌발사태로 이어진다면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 질서에 벅찬 시련이 몰아쳐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어떤 변수는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남북화해의 분위기 말이다. 꿈 같은 일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길운이 열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 환경의 덕을 보면서 통일시대를 열어갈만큼 준비하고 배려하지를 못했다. 해방기에도 사전 준비 부족으로 38선이 그어지게 되었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거니와 분단상황에서도 민족통일을 향한 민족의 열망을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솔직한 고백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의 역할이 너무 부족했다. 교회는 민족 구성원들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일의 힘으로 집약시킬 사상적 대안을 내세우지 못했다. 해방기 이전 북한은 기독교의 전성기였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북한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애정을 보였어야 했다. 그럴 경우, 북한 당국과 한국교회 간의 신뢰가 별도로 형성될 수 있고, 바로 그 통로를 통해서 통일시대의 열망을 키워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맨손이다. 이 손이 정직한 맨손이 되어 그 정직한 손으로 북한의 손을 잡아 한 걸음씩 통일시대로 가는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사태가 남북 모두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정치판 새 길을 찾는다

새옹지마라. 길이 전혀 막힌 것은 아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집스런 행동이 한국 정치의 위기를 서둘러 발견하게 되고, 지금 처방전을 쓰게 하고 있다. 여야가 함께 2012년 4월 총선을 앞당겨 준비할 수 있으니 괜찮은 일이다.

한나라당은 재창당 수준의 변화를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민주당과 야당들은 벌써 통합 민주당을 만들어냈다. 앞으로 여야 두 정당은 하기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쪽으로 길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배우고 발전해가는 것이다. 여야 정치의 변신과 변화가 과연 국민의 기대를 어느 만큼 충족시킬지는 몰라도 현재로서 우리는 기대하고 또 기도할 뿐이다. 더구나 북한 상황의 긴급성을 바라볼 때 우리 정치가 한 번 성숙해지는 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록 가난에 허덕이기는 하지만 철권통치를 통해서 그의 부친과 자식으로 이어지는 100년 권력을 내려놓고 세상을 떠나지 않던가.

그가 지난 2008년 병을 얻어, 투병 중에 다리를 끌고 한 손이 마비된 채 중국으로, 러시아로 찾아다니면서 자기 권력을 아들에게 승계하고, 소위 강성대국을 세워보자는 투혼을 발휘하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 하던가. 그러나 그 모든 욕망, 그 모든 권력을 내던지고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길을 떠나는 것을 보라. 도대체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 것인가 말이다.

한국의 정치 책임자들은 금번 겨울 마음을 가다듬어 신사적이고 창의적인 정치를 해보라. 언젠가는 도둑같이 찾아올 남북통일의 그날을 축복의 선물로 받아내기 위하여는 정치인들이 공부도 하고, 선진 정치질서도 만들면서 국민이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는 정치무대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여야간에 권력도 주고 받으면서 모처럼 시작된 민의에 의한 정권을 쟁취하는 일 또한 신사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선진국형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한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통일준비다.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갈까? 앞으로 큰 정치인은 통일 대한의 꿈과 포부, 그리고 대안을 가진 인물들이어야 할 것이다.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남북간의 관계는 민족의 혼으로 이으며, 이데올로기는 울타리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株)進成建設
석·(돌)기도실
공사 전문 업체
석·(돌)기도실 조성 공사
석·(돌)파내는 공사 전문
주택 보수 공사
축대 공사 및 보수공사
■전 화 : 070-7314-4035, 070-7315-4035
■팩 스 : 070-7316-4035
■핸드폰 : 010-9300-0435
전무 김진영
(株)進成建設

예수로만행복한건설
성전건축/기도원 건축/공장건축
철구조물 공사/리모델링 공사
설계에서 준공까지 책임 완수합니다.
①공사대금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담보물이 있으면 공사 완공 후에 받습니다.
②건축공사비가 50억원이 필요한 경우, 교회가 계약금 10억원 정도를 갖고 있으면 담보물건의 감정가치가 40억원이 나올 경우 공사준공 후 대출 받아 잔금을 지불하셔도 됩니다.
(주)예수로만행복한건설에서는 자본금 1조원을 유동성 자금(어음, 당좌, 받을 공사금 포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회사 1군 업체인 신한건설이 모기업입니다.
(주)예수로만행복한건설 협력업체
· 설계사무소-서울
· 새미조경(주)-광주광역시 본사
· 아베스건설중기(주)-대구 본사
· 엘리야 인테리어(주)-서울 본사
· 신삼부건설(주)-서울 본사
· BMK 비엠케이건설(주)-평택
· 가나안전기(주)-인천 본사
· 이삭설비건축(주)-부산 본사
· 태림강건철구조물(주)-대전 본사
☞ 현재 경기도 화성시 천천리APT 1800세대
☞ 현재 충주~앙성간 도로공사
※공사 하지 않으면서 상담하는 것은 휴대폰 요금도 아깝고 시간낭비입니다. 건축허가 득하시고 공사를 꼭 시작해야 하겠는데 물질이 없는 교회와 교역자님들만 상담하십시오. 주일날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예수로만행복한건설 대표 : 김성박 장로
인천시 남구 도화1동 427-3 2층
☎ 010-9535-8292(주·야) FAX : 032)427-2262

사회복지 법인 설립 허가서류 전문
재단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기타, 문화원, 대안학교
평생교육원, 종교법인
[복지목회의 꿈과 비전]
＊전국 평생교육원 지부 모집
한국비영리법인연구소
서울지역 02)3473-4520
호남지역 061)373-4624

Gift 러브랜드 판촉물 전문업체
각종 패 깃발 조기 선물
공장도 가격으로 해드립니다
임직기념패·메달·선물용품
연락주시면 카다로그를
즉시 보내드립니다
휴대폰 : 010-5254-8691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11-12 DY빌딩 8층
전화 : 02)938-8691 팩스 : 02)938-8692

박학용 장로
(길음교회)

소망 중고 성구사
●교회 모든 성구 염가판매, 고가매입
강대상, 장의자, 주보장, 헌금함, 각종교회 비품
※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시흥점 031)482-7747 수원·안양점 031)383-2293
구 리 점 031)573-2254 분 당 점 031)718-0689
전 국 점 016-277-8244

이삭(중고)성구사
● 중고성구 판매, 구입 전문(친절상담)
강대상, 장의자, 성찬상, 앰프, 피아노, 주보꽂이, 필경대 등
서 울 점 02)2209-2780 일산점 031)901-1330
의정부점 031)877-2522 수원점 031)217-2717
인 천 점 032)671-6220 전국점 011-336-7257

세미나실 제공
각 기관 및 단체, 교회의 각종 모임, 성경공부와 친교, 회의 장소 등의 모임에 좋은 저희 신문사의 세미나실을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이용과 관심 바랍니다.
■ 위 치 : 종로 5가 100주년 기념관 부근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도보 5분 거리)
■ 수용인원 : 20명 ＊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들소리신문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21
TEL : 02)3676-3082(대표)
www.deulsoritimes.co.kr

아멘 종합 건축
-신축·증축·리모델링·인테리어 전문-
· 조립식 · 샷시 · 페인트 · 칸막이
· 화장실 · 수도배관 · 철거 · 옥상방수
＊개척교회 및 소규모 교회 전문회사입니다.
Tel. 032)467-0956 Fax. 032)446-0991
H·P. 011-757-0957